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함께 만듭니다

동행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가 함께 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재)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공헌재단으로,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혁신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가와 단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4 IMPACT GROUND

이 임팩트 리포트는 (재)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혁신 조직이 그리는 임팩트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처 (재)브라이언임팩트
발행일 2025년 12월
이메일 contact@brianimpact.org
홈페이지 www.brianimpact.org
기획 및 제작 ㈜한국사회가치평가

Contents

1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04
	동행의 시작	
	동행이 걸어온 길	
	미션과 비전	
	주요 사업	
2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	9
	동행 사회성과측정 및 비전체계도 마련 사업	
	비영리 최초 중장년 공익활동가 실태조사 실시 (사각지대 안전망 확충)	
	관계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대출 시스템 개선사업	
3	가능성에서 현실로: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	14
	임팩트 1. 지원사업 운영성과	
	임팩트 2. 조합원 증가 및 동행에 대한 애정과 신뢰 확보	
4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	22

2024 IMPACT REPORT

1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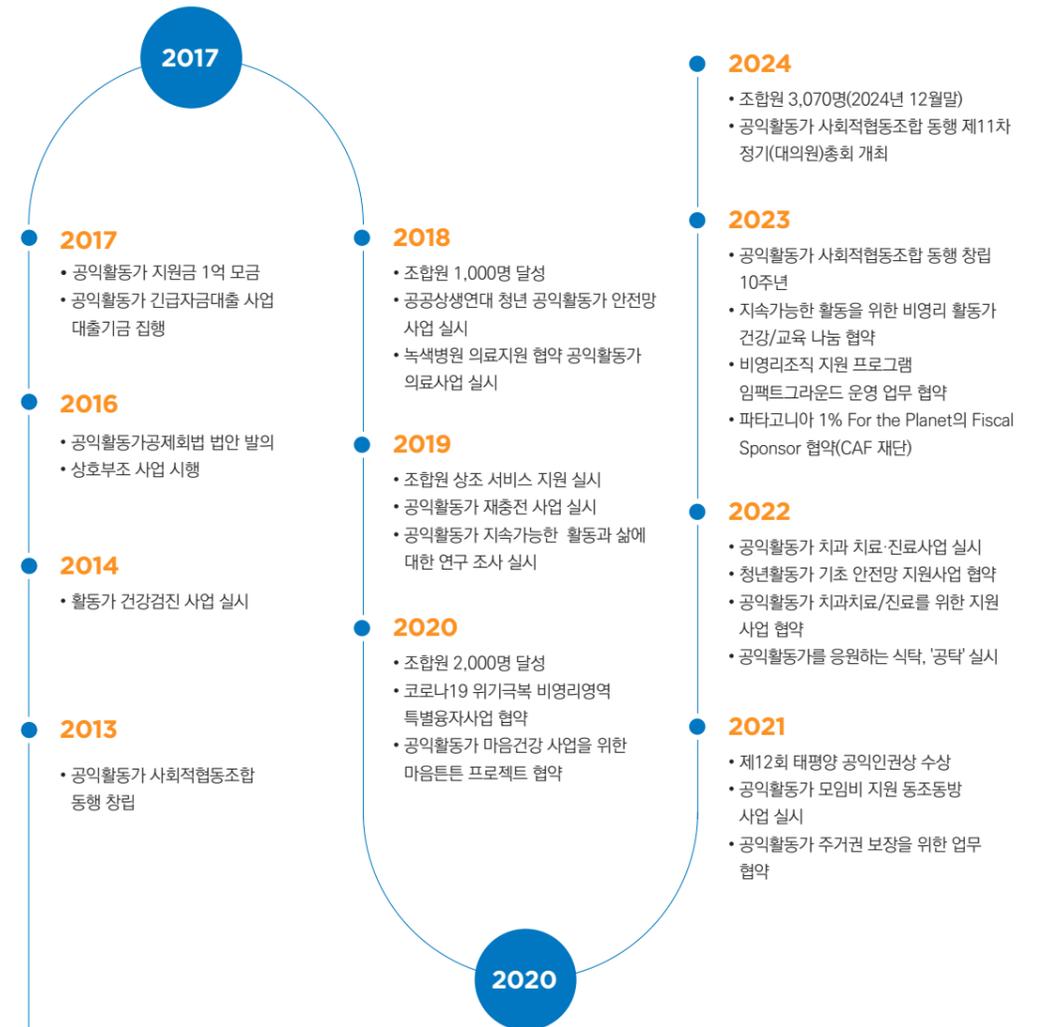
공익활동가들이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연대의 공동체로서, 상부상조의 정신 아래 시민사회의 버팀목이 되는 안전망을 함께 만들며 공익활동가에게 실질적인 지지와 자부심을 더해갑니다.

동행의 시작

동행은 상부상조·연대·협동의 원리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창립되었습니다. 2013년 창립 시부터 1천여 명의 조합원을 목표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공익활동가 지원 조직으로서 권위를 확보하고, 더 많은 활동가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동행이 걸어온 길

동행은 2013년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공익활동가를 위한 새로운 지원 분야 및 대상, 지원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2014년 '건강검진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동행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부조 사업'을, 2017년에는 경제적 안전망 사업의 초기 사업인 '긴급자금대출 사업', 2019년에는 '공익활동가 재충전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미션과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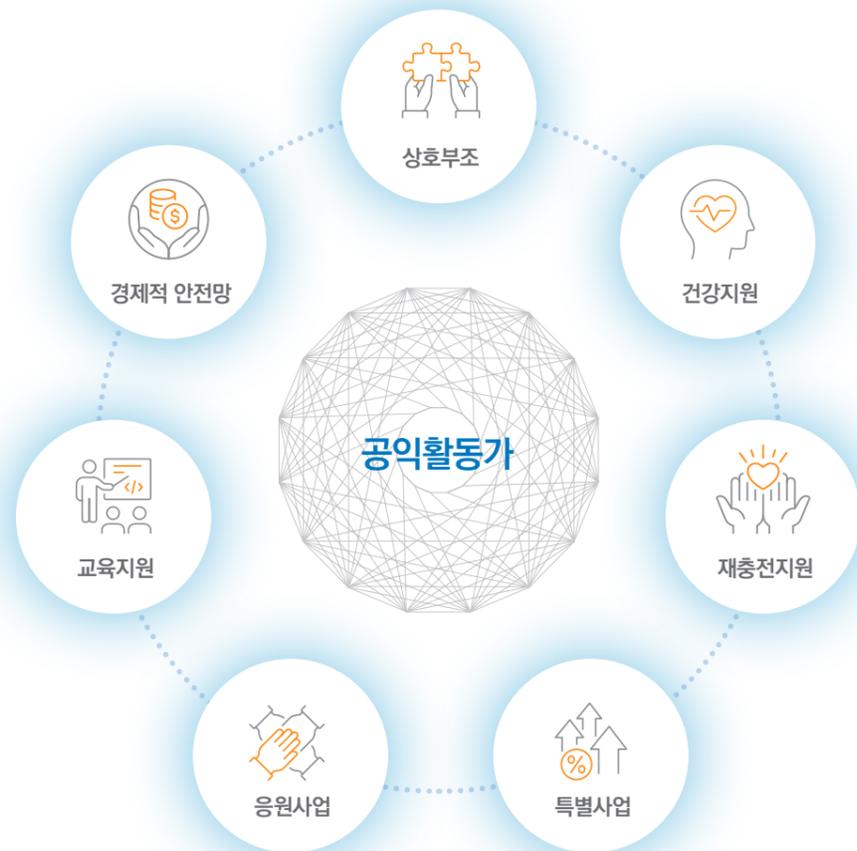


비전

미션

핵심가치

주요 사업



1. 상호부조 기금 운영 및 상호부조 사업

상호부조 기금은 조합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5천 원의 회비를 통해 급작스러운 질병(암진단 후유장애 등) 진단에 대비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경조사비, 생활비 지원 등 활동가의 생애사적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이 서로 격려하고 돕는 연대 기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활동가들에게 상호부조 기금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특히 활동가들이 서로 돕는 상부상조기금을 바탕으로 활동가들의 공동체성 형성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 공익활동가 경제적 안전망 기금

공익활동가들은 대체로 낮은 급여를 받거나 독립된 직군에 해당되지 않아 은행 대출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안전망 사업은 공익활동가들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배제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동행의 대표사업이자 활동가들로부터 가장 요청이 많은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긴급자금대출 및 지원기금을 개발하여 조합원들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소액대출, 중장년 든든기금 | 이 기금은 공익활동가들이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하거나 전세보증금, 누적된 가게 부채 등의 지출이 발생할 때 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 지원이 거의 뒷받침되지 않는 40대 이상의 활동가들을 위한 <든든기금>, 조합가입 만 24개월이 지난 조합원들에 대한 <소액대출>로 구성됩니다. 활동가들이 긴급한 경제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 1인당 최대 1,000만 원, ▲ 최대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 연이율 3%의 조건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상생연대 청년 공익활동가 안전망 사업 | 학자금 대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 공익활동가들은 부채 부담과 신용도 하락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동행은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부채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과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학자금 대환대출, 고이율 대환대출, 긴급생활자금대출, 의료비 대출 등 ▲ 1인당 최대 1,000만 원 ▲ 최대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현재까지 총 22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지원을 받은 활동가들이 성실하게 상환한 원금을 모아 다시금 다른 공익활동가들에게 재대출하는 자원의 선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공상생연대 청년 공익활동가 안전망 사업은 대안적인 기금운용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활동가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공익활동가 건강기금 조성, 종합건강 지원사업(신체/마음 건강의료비 지원)

이 사업은 정밀검진, 진료 및 치료비 등 신체 질환 중심의 의료비 지원부터 마음 건강(정신 건강) 상담 지원 및 정신 건강 진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공익활동가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지원을 제공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활동가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공익활동의 특성상 활동가들의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2~4배 높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가들에게 마음건강 상담지원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활동가들의 안정적인 정서 유지를 돕습니다.

4. 공익활동가 재충전 지원

동행은 강도 높은 공익활동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는 활동가들에게 쉼 통한 심신회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활동가들이 스스로 필요한 재충전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사단법인 꿈틀리와 협력하여 '땡땡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4년부터는 '비영리 리더십 커뮤니티 IN 치앙마이'를 통해서 비영리 리더들의 위케이션을 통해 쉬고 일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공익활동가 교육 지원

이 사업은 활동가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원)에 진학 중인 활동가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고,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활동가 자녀들 또한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자녀 학비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6. 공익활동가 응원사업 '힘내라 활동가'

동행은 활동가의 사기 진작과 일상생활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활동가'는 생일 등 기념일에 응원과 격려의 의미로 영화예매권, 전시관람권, 외식상품권, 무료숙박권 등을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는 공익활동가를 응원하는 식탁인 "공탁"을 운영하여 활동가 응원사업의 양태를 다변화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활동가를 초대, 식사를 대접하면서 서로 응원·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7. 공익활동가 주간 시행(매년 7월 첫 주)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적 기여와 가치를 발굴, 확산합니다. 활동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응원하며 지지하기 위해 공익활동가 주간을 공동 주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익활동가 사회적인정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8. 대상별 안전망 구축사업

3년 이하의 청년공익활동가들에게는 기초안전망으로 300만원과 동료들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장년 공익활동가들에게는 70X갭워크를 통해 활동과 삶에 전환기에 있는 중장년 활동가들이 회복과 자기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퇴사 이후 비영리 생태계에 남을 수 있도록 경력설계 교육을 지원합니다. 중장년 공익활동가들이 건강하게 회복하여 비영리 생태계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024 IMPACT REPORT

2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



임팩트그라운드 참여를 통해 동행은
사회적 솔루션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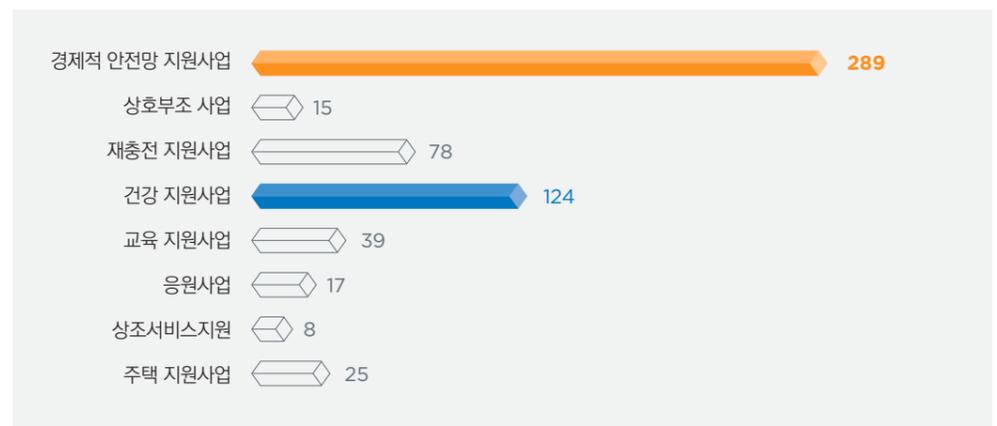
동행의 사회성과 측정체계 및 비전체계도를 수립하고
중장년 공익활동가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 안전망을 확충했으며, 관계금융 기반의
지속가능한 대출 시스템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동행 사회성과측정 및 비전체계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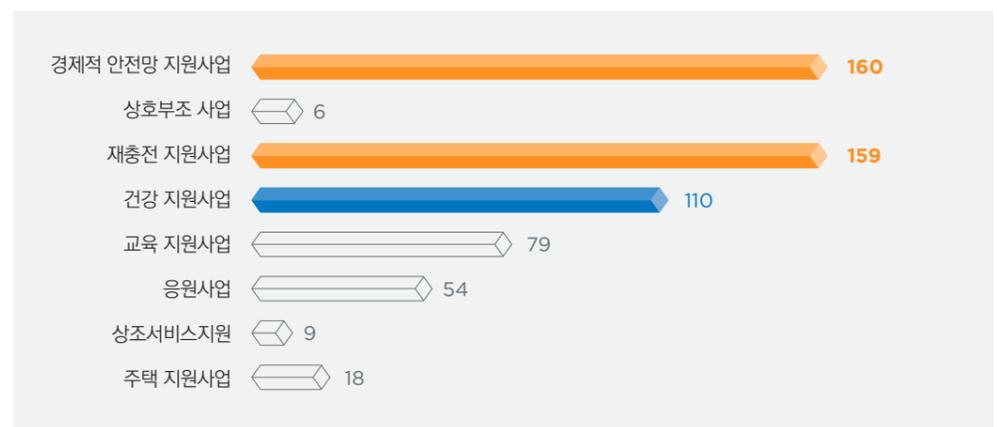
사회성과측정 및 비전체계도 마련 사업은 지속가능한 조직체계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동행은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사회성과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비전체계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동행 10년 활동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2023.3.20~4.5(총 17일), 총 37문항)를 시행하였고, 총 595명의 응답자가 각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 사업에 응답하였습니다.

비전체계 수립을 위해 동행 사업 중 “나에게 필요한 사업”과 “활동가에게 중요한 사업”을 설문한 결과 모두 “경제적 안전망” 관련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공익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응답자의 약 62%가 ‘낮은 연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낮은 복지 지원 체계)’을 꼽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래 중장년 공익활동가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가를 위해서는 경제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동행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고(10점 만점에 9.0점), 동행 추천도 역시 9.25점(10점 만점)을 기록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차별화된 동행의 위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행 사업 중 활동가에게 중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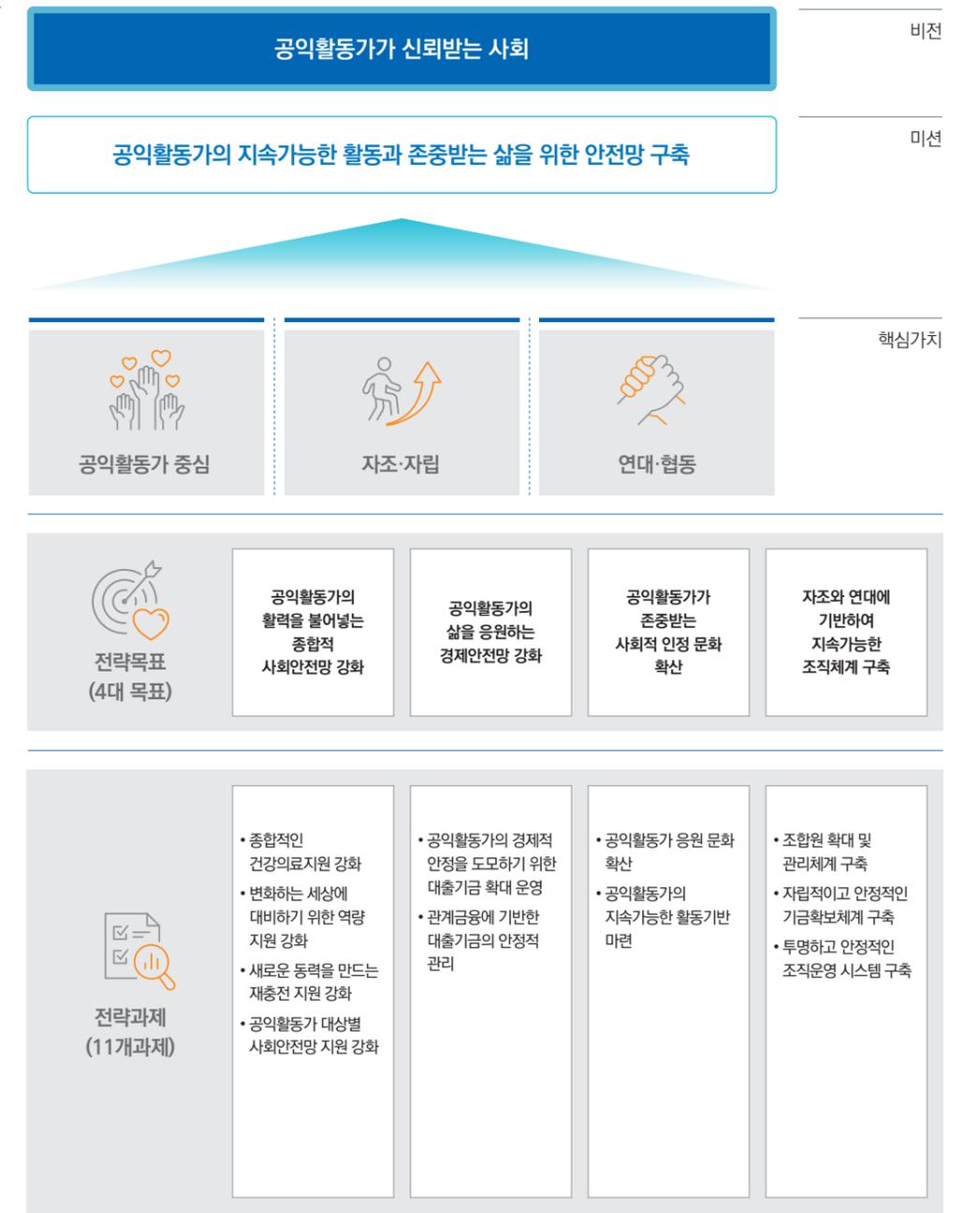


동행 사업 중 나에게 필요한 사업



사회성과 측정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비전 전략체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4대 전략목표의 달성은 궁극적으로 공익활동가가 신뢰받는 사회로 연결됩니다.

조직의 비전과 미션에 따른 비전 전략 체계도 구성



비영리 최초 중장년 공익활동가 실태조사 실시 (사각지대 안전망 확충)

동행은 여러 연령대의 공익활동가들 중에서도 특히 중장년 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는 2023년에 실시한 <사회성과측정 설문조사>에서 “동행의 사회안전망 사업 중 강화되었으면 하 는 사업”으로 ▲ ‘중장년 활동가 지원확대’(25.4%), ▲ ‘지원 금액 및 지원 규모의 확대’(25.1%) 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장년 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갖고 안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 중장년 공익활동가의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 능한 일과 삶을 위한 정책 및 지원체계 마련에 초점을 둔 《중장년 공익활동가의 활동과 삶》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2024년 7월)하였습니다.

중장년 공익활동가의 활동과 삶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작성자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연구기관) 박영선(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연구책임자) 고정근(공익연구센터 블루닷 대표, 공동연구원) 안현찬(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주요 내용	1. 《중장년 공익활동가 활동과 삶》 실태조사 개요 2. 중장년 공익활동가의 건강과 삶 3. 중장년 공익활동가의 일자리와 소비·지출 4. 중장년 공익활동가 실태조사 결과 시사점과 정책 방향

이를 위해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였고, 현직 활동가와 퇴직 활동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직 활동가란 시민사회조직 및 공익단체에서 규정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만 40세 이상(1983년 이전 출생)의 상근 또는 반(半)상근 활동가를 뜻하고, 퇴직 활 동가란 시민사회조직 및 공익단체에서 5년 이상 상근 또는 반상근직으로 일하다 최근 3년 이내에 퇴사한 만 40세 이상(1983년생 이하)인 전직 활동가를 의미합니다.

조사개요

대상 | 만 40세 이상 공익활동가 **응답자** | 총 595명(현직 470명, 퇴직 125명)

조사기간 | 2023.12.8~12.27

전체 응답자 수는 470명으로 • 여성: 58.5%, • 남성: 41.1%였고, 연령별로는 • 40대: 273명 (58.1%), • 50대: 182명(38.7%), • 60대: 15명(3.2%)로 집계되었습니다. 기타 특성으로는 • 서울 지역 거주자 45%, • 배우자 있음 72%, • 1인가구 14%, • 평균가구원 2.9명 등이었습니다.

중장년 공익활동가 실태 조사 표본의 주요 특성	
성별	• 여성 58.5% • 남성 41.1%
연령	• 40대 58.1% • 50대 38.7% • 60대 3.2%
활동분야	• 환경/생태분야 21% • 여성 10.4% • 인권 7.9% • 아동/청소년 7.4% 순
평균 임금(세후)	• 243만 원 • 여성 230만 원 • 남성 263만 원

* 상세 현황은 중장년 공익활동가의 활동과 삶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참조.

이러한 기초 현황을 토대로 여성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높고 활동가의 연 령대는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서울 거주자가 45%에 달한다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6년 이상 경력자가 40%를 구성하고 있어 고경력자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장년 공익활동가들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황, 일자리 특성 등에 관한 주요 실태조사 결 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태조사 주요결과

중장년 공익활동가 실태조사 결과 요약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병률	응답자의 50% 이상이 1개이상 만성질환 보유
	우울감 경험률	전체의 약 20%, 6~10년 경력자가 가장 높음(25.7%)
	미충족 의료 (치과 제외)	전체 평균 16.8%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5.3%)
경제 상황	평균 실수령 임금	243만 원 * 고령화연구패널(60대 이상 다수) 보다 22만 원 많고 고령화고용패널(40~50대 다수)보다 72만 원 적음
	부업률	17.4% (전국 평균의 17배)

만성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 유병률은 고령화고용패널의 동일 성별, 동일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활동가 들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화기계질환, 디스크, 우울증 유병률은 활동가 에게서 4~5배 정도 높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비만을 역시 고령화연구패널 결과보다 높았고, 미충족 의료율은 전체 평균 16.8%로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집계된 5.3% 대비 4배가량 높았습니다. 경제 상 황 측면에서도 현직 활동가들의 경우 부업률이 17.4%에 달해 전국 평균의 17배에 달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으로 실시한 이번 중장년 활동가 실태조사는 비영리 부문 최초로 시행된 실태조사입니다. 이로써 공익활동가들의 삶과 일에 대한 실제 상황을 점검·진단하고, 활동가들의 수 요를 확인하는 기초자료로서 정책적 가치가 높습니다. 동행은 이를 바탕으로 중장년 공익활동가 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중장년 활동가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며, 현직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범 사업을 먼저 개발·집행하고, 그 성 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관계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대출 시스템 개선사업

이 사업은 연체율 증가 등 대출사업 리스크에 대응하여 공익활동가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체계적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조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및 T/F를 신설·운영하고, 대출기금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회계컨설팅 및 전산프로그램 개 선 방안을 도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금융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 IMPACT REPORT

3

가능성에서 현실로: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



임팩트 1. 지원사업 운영성과

공익활동가 지원 인원

83명

지원 금액

1억 387만 원

자녀출생·입양



각 50만원 | 29명
1,450만원

사망



최고 3,000만원 | 2명
5,000만원

결혼·이혼



각 20만원 | 40명
800만원

암·중증질환 진단



최고 500만원 | 10명
2,900만원

재활기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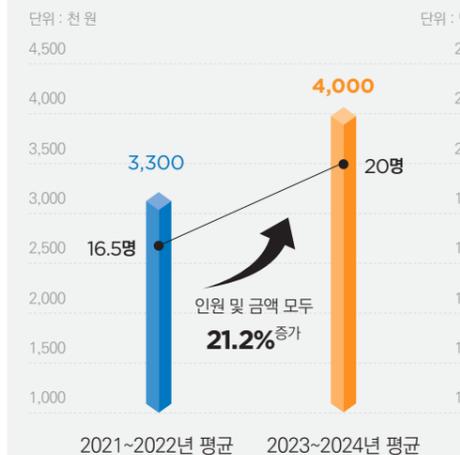


최고 100만원 | 2명
237만원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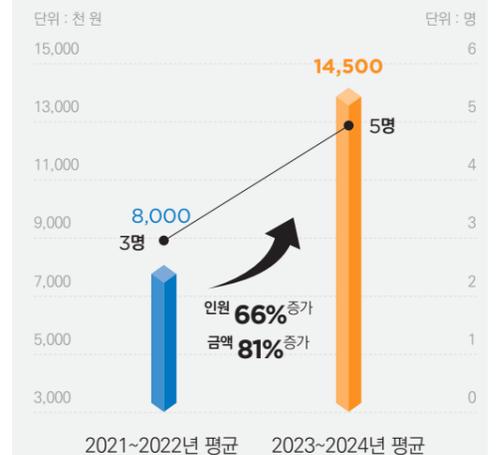
• 결혼 이혼 지원

(2021~2022년 평균 vs. 2023~2024년 평균 비교)



• 암 중증질환진단 지원

(2021~2022년 평균 vs. 2023~2024년 평균 비교)



상호부조 기금은 활동가들의 생애주기 및 다양한 경조사, 암·중증질환 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전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결혼·이혼의 경우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이전인 2021~2022년에는 평균 16.5명, 평균 총 330만 원을 지원한 반면 2023~2024년에는 21% 증가하여 평균 20명, 총 4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이나 중증질환 진단 금액 역시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전후를 비교할 때 지원 인원의 경우 66%, 지원 금액은 81%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 경제적
안전망 기금
운영성과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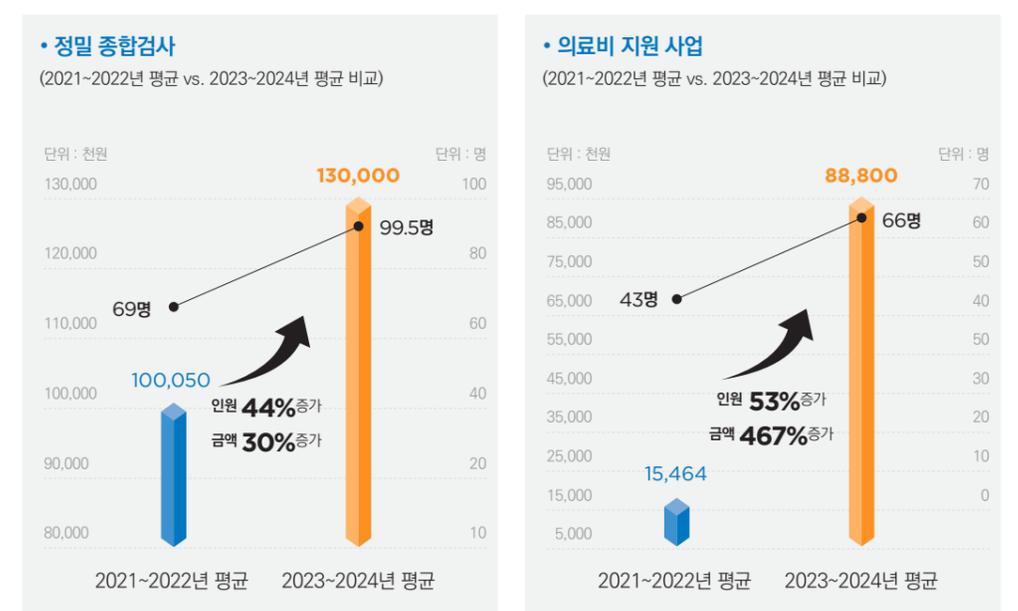


경제적 안전망 기금 중에서 청년 공익활동가 안전망 사업의 경우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계기로 2021~2022년 평균 총 2억 2,817만 원에서 2023~2024년 평균 총 3억 5,900만 원으로 증가하여 기존 기금의 70% 이상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임팩트그라운드에 참여하면서 2023년에는 9명에게 5,500만 원을, 2024년에는 7명에게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활동가들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익활동가
건강기금 조성
및 종합건강지원
운영성과

구분	지원내용	지원내역
진료비·입원비·수술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최대 100만 원 지원(50% 녹색병원, 50% 동행) 정신건강과 진료포함 모든 진료 가능(치과 제외) 	
정밀 종합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정밀 검사비 총 145만 원 중 녹색병원 100만 원, 동행 30만 원 지원, 본인 의료검진 부담 15만 원 	199명 2억 6,000만 원
의료비 지원사업 (비급여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활동비 중 치료비용이 1/3 이상인 조합원의 의료비 지원 본인 부담의 치료를 위한 검진비용 및 치료비용 비급여항목의 치과 치료비용 정신과 개인상담 비용 포함 	132명 1억 7,760만 원
뜻밖의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개인 마음상담 지원비(5~6회기 지원) 뜻밖의 상담소 협력사업 	265명 8,736만 원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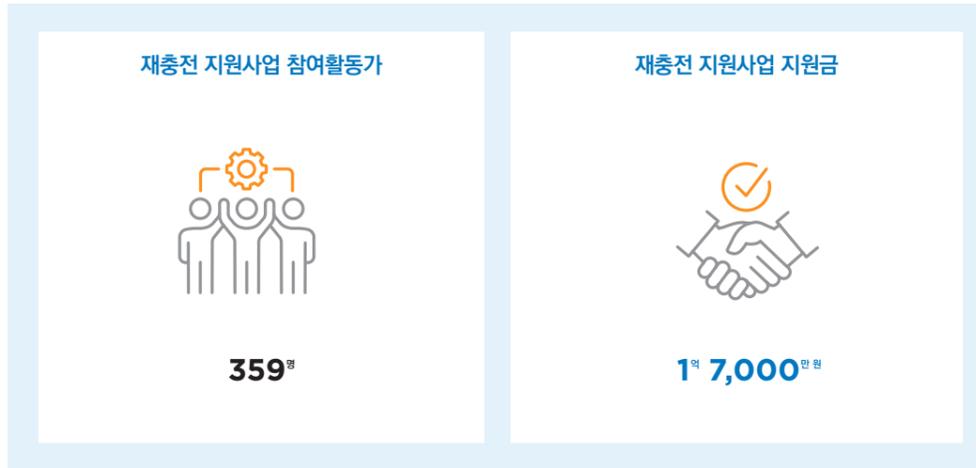
건강기금 조성·종합건강 지원사업은 공익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함으로써 공익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통해 정밀 종합검사의 경우 2021~2022년 평균 69명, 총 1억 5만 원에서 2023~2024년 평균 99.5명, 총 1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의료비도 2021~2022년 평균 43명에서 2023~2024년 평균 66명에게 지원하였는데, 금액 면에서는 평균 총 1천 564만 원가량 지원하던 것에서 총 8,880만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뜻밖의 동행 사업은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이전의 2년 동안에는 평균 24명에게 평균 총 93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나 2023~2024년에는 평균 132명, 총 4,368만 원가량을 지원함에 따라 인원과 금액 모든 면에서 약 6배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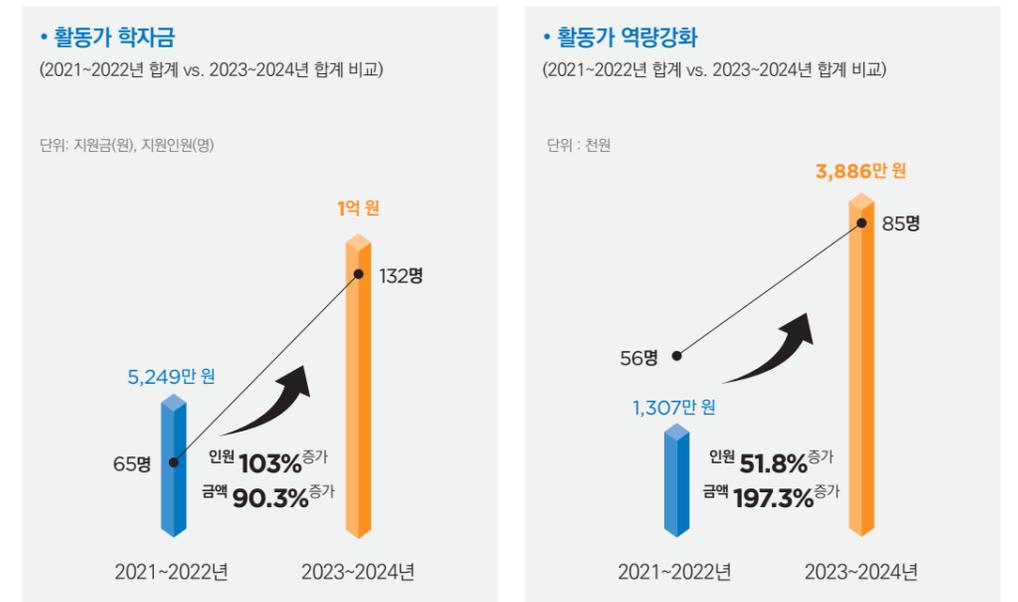
공익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운영성과



공익활동가 교육지원사업 운영성과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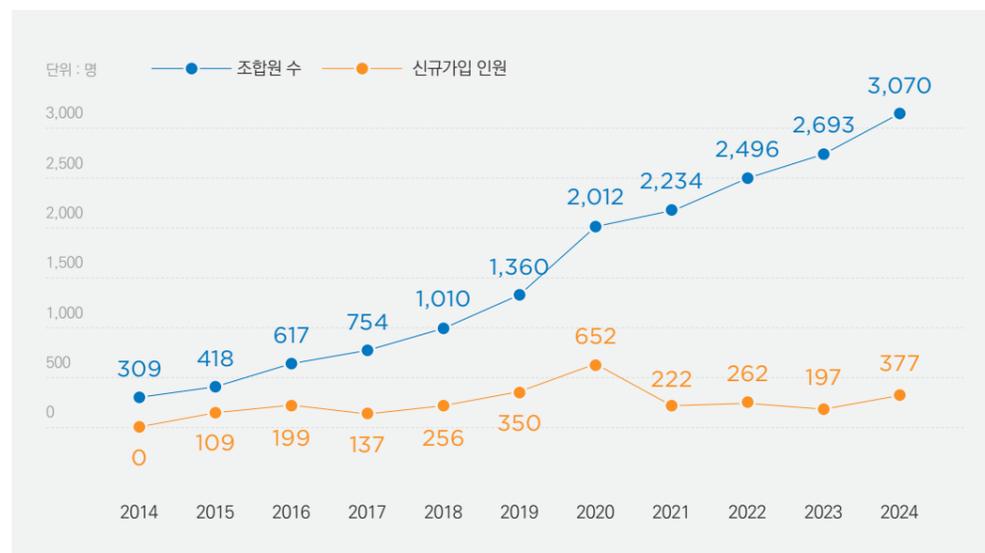


동행은 공익활동가들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참여를 계기로 활동가 학자금의 지원 인원은 2021~2022년 65명 대비 2023~2024년 13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금액도 약 5천 2백만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활동가의 역량강화 사업도 2021~2022년 사이 총 56명에게 1천 3백만원을 지원했다가 2023~2024년에는 총 85명에게 3천 8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3배 이상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임팩트 2. 조합원 증가 및 동행에 대한 애정과 신뢰 확보

동행 조합원 수 변동 추이 2014~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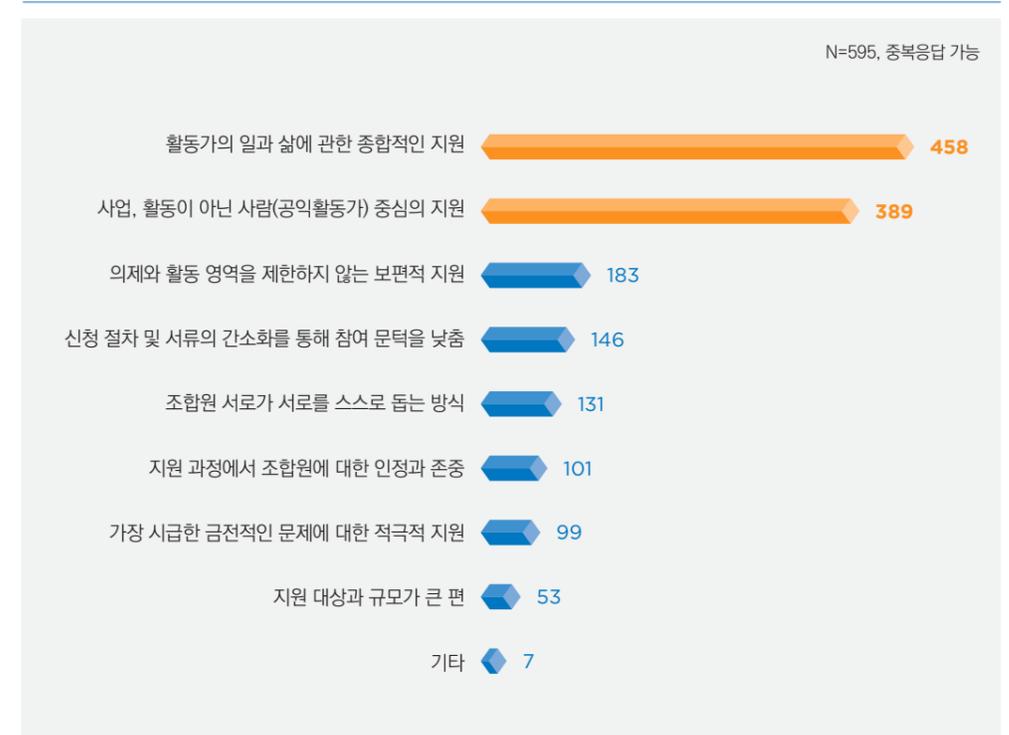
2014년 조합원 309명으로부터 2024년 3,070명(기업 단체: 714개)에 이르기까지 동행의 조합원 규모는 10배가량 성장하였고, 자산규모 역시 2014년 2,800만 원에서 2023년 31억 원으로 약 10배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사회성과 측정 설문 당시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동행이 가지는 강점과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 활동가의 일과 삶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경제적 지원, 교육 지원, 건강 지원 등), ▲ 사업이나 활동이 아닌 ‘사람’(공익활동가) 중심의 지원이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차별화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 동행은, 동행이 추구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성과 측정 설문 결과를 살펴보니, 지원 대상을 특정 의제로 국한하거나 활동 분야(영역)로 한정하는 다른 기관과 달리 동행은 모든 분야의 공익활동가들에게 열린 조직이자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상호부조의 방식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지원함으로써 조합원들은 스스로가 지원을 ‘받는’ 대상이면서도 동료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다른 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한 조합원은 ‘공익활동가가 공식 직업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거나 진행 과정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동행은 “공익활동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조직”으로, 지원 과정에서도 활동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준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기관 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동행의 강점 및 차별성



공익활동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조직으로서 동행 역할에 대한 만족도



공익활동가 간 협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동행 역할에 대한 만족도



동행에 대한 신뢰도



동행추천지수



2024 IMPACT REPORT

4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



공익활동가를 가장 잘 알고 존중하는 조직

임팩트 측정을 위해 만났던 한 조합원은 '동행은 모든 대상 및 관련 주체들이 활동가이기에 나에게 대해 잘 모를 거라는 의심이 들지 않고, 오히려 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거라는 믿음이 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공익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괴리나 어려움을 동행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가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을 제공해 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활동가 기초 안전망 사업에 참여했던 3박 4일 간의 일정이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동료들을 만나서 서로 사정을 듣고 공감하고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의욕이 넘치는 활동가들을 보며 앞으로도 계속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며 살고 싶다는 의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은 동행이 활동가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기획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내가 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주거관련 비용과 관련사업을, 의료나 장례 관련 영역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든든한 뒷배', '활동가가 중심에 있는 조직', '함께 연대한다는 느낌을 받는 곳' 등과 같이 공익활동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동행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동행은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식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기 때문에 공익활동가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시의 적절한 지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부조를 근본으로 하는 동행의 운영방식을 통해 스스로를 돕는다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공익활동가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행의 가장 큰 강점인 공익활동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 기반의 운영 방식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또 10년, 동행의 과제

2024년 동행의 조합원은 3,070명으로 단일 조직의 조합원으로는 많은 인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 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여 출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규모의 확장이 당연한 과제이자 우선되는 목표입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 활동가의 가입 비율이 낮은 편이므로 지역 단체에 대한 가입 독려와 더불어 지역 조합원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 영역에 대한 확장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 사업별 규모와 대상의 확장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수요가 많은 사업 중 하나는 중 장년 및 은퇴 이후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현재 동행 조합원 중 은퇴 연령에 해당되는 60대 이상은 4%에 불과하지만 50대를 포함시키면 비율은 43%까지 상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점차 연령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중장년층과 은퇴 이후 활동가 노후에 대한 지원이 동행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가 간의 소통과 연결을 위한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동행의 지원 워크숍에 참여했던 조합원의 경우 워크숍을 통해 같은 고민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서른 명이나 사귄 수 있었고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친분을 유지하며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의 대나무숲 역할을 동행에서 담당하길 희망하는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공익활동가 대부분이 동일한 상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직장에서는 마음을 터놓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활동가 동료의 중요성은 더욱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 동행의 조합원들은 동행에 아낌없는 신뢰와 애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행이 조합원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조합원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함께하는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